

##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규모 건축물 감리체계개선, 착공 전 안전검토체계 구축,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9인 가운데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11월 8일 김태홍 의원 입법발의로 시작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햇 수로 5년. 난항을 겪으며 안개 속을 걷던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은 2016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됐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주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에 대한 공공의 역할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부속구조물의 정의 신설 및 관리체계 마련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축물의 안전·환경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구조물을 부속구조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제도를 위반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5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높여 건축관계자 벌칙 수준을 강화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16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취임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12월 11일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조충기 회장은 이날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이임하는 김광우 대학건축학회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조충기 회장은 취임식에서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우리 건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최준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3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WTO관련 국제 협상 및 UIA(국제건축사연맹) 등의 총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축계 대표기구로 2000년 6월 시드니에서 열린 UI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UIA 한국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3단체가 돌아가며 3년에 한 번씩 대표회장을 배출하며 ‘건축의 날’과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주최기관이다.

### 국토교통부, 신진건축사육성 MOU 3개 공공기관과 체결

국토교통부가 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를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신진건축사관련 정책수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사업추진 ▷발굴된 신진건축사 자문 및 심의위원 위촉 ▷신진건축사 관련 각종 행사의 기획·시행 협력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주요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이 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참가관련 중국 대표단 방한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 대규모 참석이 예상되는 중국의 대표단이 12월 8일 방한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대회 조직위와 미팅을 가지고 전시부스 규모와 등록방법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중국의 전시부스 책임자인 Shen Di 중국건축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중국건축사협회 관계자 8명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조직위와 서울시 관계자 등을 만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15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12월 3일 건축사회관 1층에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50여명의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 600kg을 구로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의 복지시설에 전달됐고, 특히 용산의 영락 애니아의 집은 서울시청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게 됐다.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한마음대회 개최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12월 10일 인천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인천건축사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에게 협회 주요 규정 및 건축관련 주요 법령에 대해 공지하였으며 조충기 회장의 특별강연 '협회 5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와 윤혁경 부회장의 윤리교육이 진행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50년사 출판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12월 2일 제주칼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및 제주건축 제4집 출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건축 제4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건축사회 50년사와 제주건축역사, 제주현상 등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제주도건축사회와 제주지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경로당 12곳 단열재 설치 봉사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가 12월 5일 관내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지역 내 전동면 3곳 등 모두 12곳을 대상으로 단열재 교체와 문풍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 것. 올해 1월에 공식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빠르게 지역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화성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가 12월 3일 화성시 동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동부출장소에 전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날 전달된 성금을 저소득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곳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연말연시 기부的小手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지역건축사회가 12월 7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평택지역건축사회는 지난 3년간 113명의 학생들에게 4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등 지역 사회 환원에 노력하고 있다.